

리서치팀

☎ 82-2-3774-0451

1. 통화전망

(1) 달러/원(선물)

예상 레인지: 1,093원~1,103원

방향성: 약보합

금주 달러/원은 2020년 연말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중공업사들의 계속되는 수주 소식에 하락 우위를 전망. 그간 변동성을 키운 FX스왑시장에서도 진정세가 이어지면서 환율에 하락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이에 더해 브렉시트 합의 타결 이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견히며 코스피 증시도 2800pt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외국인의 증시 순 매수세 이어질 수 있는 점도 환율에 하락 요인. 다만 1100원대에서 하단을 확인한 환율은 국내외 코로나 19 재확산과 꾸준한 결제수요에 하단이 지지되며 약 보합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

(2) 유로/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1.210~1.235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유로화는 브렉시트 무역협상 타결로 그간의 약세 되돌린 가운데, 영국 발 변종 코로나 19 소식 주시하며 연말 얇은 장세 속 강보합권 등락을 예상. 달러화는 브렉시트 타결 소식에도 불구하고 1월 5일 조지아주 상원 투표 대기, 영국 발 변종 코로나 19 확산 소식, 미국 부양책 합의 노이즈를 소화하며 약 보합권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임. 다만 미국의 의회 문턱을 넘은 미국 추가 부양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규모 확대 요구에 야당인 민주당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공화당의 수용가능성은 적은 상황.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 예산안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어 의회 섀다운 가능성이 달러화 약세 제한할 것으로 보임.

(3) 엔/달러(선물)

예상 레인지: 0.96100~0.968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엔/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일본 수출 업체들의 헤지 수요 유입되며 상승 우위 속 강 보합권 등락을 전망. 다만 스가 총리의 엔/달러 강세 경계 발언과 박스권의 강한 지지력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거부 발언에도 불구하고 연말 잦아든 거래량 속 엔/달러는 큰 폭의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음. 한편 27일 기준 일본 내 코로나 19 감염자가 3881명, 누적 확진자가 21만 9146명으로 늘어나며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음. 다만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와 부양책 시행 가능성으로 인한 달러 약세가 맞물리며 엔/달러도 포지션 물량 제한되며 박스권 등락할 것으로 보임.

2. 지수전망

(1) S&P500(선물)

예상 레인지: 3,600~3,900 pt

방향성: 약보합

금주 증시는 마지막 주간인만큼 차분한 분위기 이어지며 좁은 폭 등락할 것으로 전망. 매년 마지막 5거래일과 연초 2거래일은 산타렐리로 인식되며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어지게 됨. 다만 올해는 이미 연준의 강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전망은 다소 조심스러운 상황. 특히 1월 5일 열릴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시장의 강한 변동성 이어질 수 있음. 만일 민주당이 상원마저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부양책과 증세, 규제 강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양책 합의 거부에도 상승 우호적인 흐름 이어갔으나, 정부의 섀다운 현실화 가능성은 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3. 상품전망

(1) WTI(선물)

예상 레인지: 45~50.00 USD

방향성: 약보합

금주 WTI는 미국 부양책 이슈와 OPEC+의 원유감산규모 축소에 따른 증산 발표를 소화하며 강보합권 등락을 전망. 지난주 WTI는 영국과 EU간 최종협상 타결 가능성으로 인한 하드 브렉시트 우려가 낮아졌고, 미국 12월 FOMC회의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달러 약세와 연동해 상승 마감. 21년 1월 1일부터 OPEC+는 원유감산규모를 일 770만 배럴에서 720만 배럴로 일 50만 배럴 증산할 예정. 4월 일 200만 배럴 증산을 계획했으나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른 수요부진 우려로 지난 12.3일 1/4인 50만 배럴로 줄인 상황. 금번 증산 결정이 유가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다만 지난 주 영국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변이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으로의 확산 가능성과 영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봉쇄재개 등 제한 조치강화 가능성은 원유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

(2) 골드/실버(선물)

예상 레인지: 1,840~1,900USD

예상 레인지: 25.00~30.00USD

방향성: 강보합

금주 골드 가격은 미국 추가 부양책 시행에 대한 기대감에 달러화 약세 우위 흐름과 유럽 발 변종 코로나 19 확산으로 달러가 안전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에 달러 하단이 지지되며 강보합 전망. 코로나 19 부양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합의한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현금 지급액을 인당 600억 달러에서 2천억달러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양책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여 결국 승인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골드 가격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

본 자료는 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가 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당사 고객들에게 배포되는 자료로서 본 조사자료의 내용은 당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를 하여야 하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www.futures.co.kr) 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